

鄉土學校와 學校圖書館

郭 眞 鎔

(麗水東國民學校 司書教師)

1. 鄉土社會教育의 課題

科學文明의 急進的인 發達로 因하여 오히려 人間의 智慧로 만들어진 文明의 利器에 人間自體가 奴隸化되어 가는 지금 우리는 아직 文明의 黎明期에 處해 있다고 할가?

그래도 都市에서 生活하는 사람은 文化的 惠擇을 입어 文化人の 一員으로 生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한발자욱만 都市를 벗어나면 아직 前近代의 生活이나 原始的인 生活狀態에 놓여 있어 文明의 孤兒로서 汲汲하고 있다고 하여도 빈말이 아닐 것이다.

解放後 20年동안 몇 차례의 農村運動과 鄉土社會開發運動이 活潑히 일어나 이 落伍한 文明의 孤兒社會를 開發하겠다고 일어났지만 諸般 與件의 制約으로 龍頭蛇尾에 끄치고 말았던 것은 너무나 슬픈 傷處였다.

이 뒤를 이어 鄉土學校運動이 일어나 教育의 힘으로 鄉土의近代化作業과 아울러 學校와 鄉土社會와의紐帶를 強化하여 보다 教育의 効果를 높이려고 열린運動을 展開하였지만 이 重要한 國家의 使命이 一時의in 教育時流로서 끄치고 말 時點에 있다는 것은 우리 國家의近代化를 為하여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릇 現代와 같이 複雜한 社會에 있어서는 各個人, 各家庭, 各學校, 鄉土社會는 서로 重複된 여려 개의 社會에 屬하고 있는 것이며 그 成員은 같은 目的과 다른 目的을 為하여 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狀態에 놓여 있는 鄉土社會는 같은 地理의 基底를 가진 鄉土社會라 할지라도 그 鄉土 全體의 生活方法에 있어서는 類型이 다른 人間에 의하여 鄉土社會의 進步的인 社會過程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이 社會process이 滿足스럽게 操作된다면 鄉土社會는 그 基本的作用이 잘 運營될 수 있으나 反對로 잘 運用되지 않는 境遇에는 그것이 結果的으로 社會問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鄉土社會의 問題가 發生하지 않도록 보다近代의이며 參與的인 生活에의 民主的인 生活態度를 確立시킬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鄉土社會의 基本的인 過程이란 무엇인가?

이 問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人間의 基底만을 列舉하여 보려고 한다. 即

- 1) 自然環境의 利用.
- 2) 過去의 評價.
- 3) 住民에의 適應.
- 4) 思想의 交換.
- 5) 生計를 세우는 것.
- 6) 市民으로서의 責任.
- 7) 健康安定의 維持.
- 8) 家庭生活의 向上.
- 9) 教育의 保證.
- 10) 宗教保證에의 保證.
- 11) 美를 즐기는 것.
- 12) 娛樂의 實施.

以上의 12개의 鄉土社會의 基本의 基底가 適切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結局 鄉土社會의 開發과近代化의 作業이 不進하는 것이며 典型的인 社會問題를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鄉土社會教育의 必要性

우리는 너무나 社會教育의 問題를 度外視했거나 생각도 하지 않는 狀態다.

겨우 文盲退治運動程度가 그 社會education의 全部였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數百 數萬의 青少年이 學校education을 받고 社會에서 國家를 為하여 奉仕하고 國家의 棟樑으로活動하고 있으나 거기에 比例하여 수많은 教育받은 人材가 學校education을 마치면 그것으로 人生의 授業과 學習이 中斷되고 그 以上的自己發展向上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은 社會education이 國家的인 放任으로 因하여 그 以上的發展을 期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오늘의 丁抹이 世界最高의 樂園으로 地球上의 人類로부터 憧憬받는 것은 곧 社會education의 莫大なる 貢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公認된 事實이 아닌가?

2次大戰後 많은 나라들은 鄉土社會education의 重要性을勘案하여 이 運動을 積極 推進하여 自國의 國力を伸長시키는데 力盡하여 그 成果를 舉揚한 國家가 많은 國家들로부터 마음속 깊이 思惟되 있다는 것은 이 運動이 얼마나 鄉土社會開發에 貢獻하고 있다는 것을

端的으로 證言하고 있는 것이다.

事實 우리는 이제까지 教育을 充實한 計劃下에 組織의 으로 끌고 나왔다고 하지만 學校教育으로 그쳤지 「바깥社會」를 為한 生活教育은 外面狀態였다고 할 수 있다. (勿論 땅은 提唱이 있으나)

그것은 入試教育 하나로서도 證明되는 것이다.

그래서 學校가 그 鄉土社會가 要求하고 鄉土社會가 목마르게 希求하는 文化의 普及, 生活의 改善, 健全한 娛樂等에 對하여 至極히 消極的인 態度로 臨하거나 이에 對한 指導, 善導를 하지 못하고 學校는 學校대로 물위의 기름처럼 떠돌아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鄉土社會가 가지고 있는 痘疾의인 住民間에 융한 血緣關係, 對人關係로 因한 派爭意識의 拂拭이라든지 무서운 傳染病의 蔓延에 對備한豫防方法의 啓導等 許多한 社會問題를 안고 있는데 그대로 放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態가 아닌가 한다.

그들이 萬一至今 使用하고 있는 農耕具보다 더욱 便利하고 利用하기에 便利한 農具를 써서 農事를 짓게 鼓獎하거나 같은 面積에서 많은 收獲을 올릴 수 있는 農事法을指導한다면 이를 外面하고 拒否할 愚民이 아니라면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 말이다.

올센(Olsen)이나 쿡(Cook)이 地域社會와 學校와의 紐帶에 關하여 論한 그 自體가 鄉土社會의 開發에 積極的인 奉仕를 하여야 된다고 言及했다면 우리의 오늘의 現實에 있어서는 더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3. 마을文庫와 學校圖書館의 一元化

1930년까지 兒童中心教育에 注力하던 教育은 經濟大恐慌을 契機로 하여 鄉土社會中心의 教育을 絶叫한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에 뛰어 우리 나라에도 1950年을 起點으로 하여 1960年에 鄉土教育의 絶頂을 이루었다 할 수 있으나 이렇다 할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말은 것은 이 運動이 行政의으로 積極的인 뒷받침이 없었고 그 組織이 一元化되지 못했으며 거기에다 文書의인 資料의 普及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鄉土學校하나 無條件 學校가 生產教育을 示範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文盲者の 退治가 그 全部인 것으로誤認한데서 참다운 이 運動이 芽을 퍼우지 못했다.

그러나 真實로 鄉土學校를 建設하자면 적어도 學校가 文化的 센터로서 學校가 그 鄉土의 文化全般의 向上을 為한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運動場을開放하여 그 住民의 生活場으로 한다든지 教室을 열어 住民의 民主的인 參與의 討論場으로 提供한다든지 鄉土를 為한 計劃과 設計가 教師와 共同으로 協議되어 鄉土를 為한 組織이 學校를 中心으로 이루어

져 教師는 核心的 役割을 하여 鄉土開發을 이끌어 나가는데에 참된 鄉土學校가 建設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自然 住民이 學校를 鄉土에서 가장 優位의 機關으로 再認識하게 되고 協助的인 마음의 움직임이 용솟음쳐 學校가 살아서 움직이고 鄉土社會는 나날이 發展하는 過程을 밟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鄉土社會는 너무나 땅은 土地의 制度에서 허덕이고 있는 事實이 鄉土開發의 瘋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그만한 自然部落 안에는 여러 組織體가 有機的인 連關係 없이 서로가 權力鬭爭을 하고 있는 樣相이라는 것은 이미 黑혀진 事實이다.

農業協同組合, 山林契, 再建青年會, 婦人會, 4H 클럽等等 땅은 組織體가 散發의으로 여러 機關에 依하여 命令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系統的이며 組織의in 活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計劃의 多產으로 因한 倒產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組織體를 一元化하여 不必要한 經費의 浪費와 時間의 節約를 무엇보다도 切感하는 이 때 마을文庫 보내기 運動이 展開되고 學校마다 圖書館施設運動이 熱狂的으로 이어나고 있음은 이 運動을(鄉土社會教育運動) 一元化시키는데 가장 適切한 時點이라 본다.

學校의 圖書館은 兒童만을 為한 讀書施設이 아니고 그 읽을 거리가 바로 그들 家族에게도 讀書를 할 수 있는 機會를 준다는 意味에서 밝은 展望을 보여 주는 때문이다.

事實 農村에는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고 健全한自己修養과 人間形成의 길을 模索하고 싶으나 그 施設이 없기 때문에 땅은 農閑期를 危險한 投錢으로 一貫하는 傾向이라는 것은 紙上을 通하여 每年 퇴풀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現實의 問題로서 學校는 너무 偏狹의이고 獨善의어서 모처럼 貴重한 圖書를 마련하면 그것을 學校안의 兒童들만의 讀書資料로서 提供할뿐 그 以上的 門戶를 開放하지 않으려는 咨嗇한 教育觀 때문에 좋은 鄉土社會의 文化向上에 寄與하는 길을 막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問題를 좀 더 教育의이며 國家의in 面에서 深思해야 할 切實感을 가진다.

1960年 마을文庫 振興會가 創立되어 後進의 讀書運動을 展開코자 땅은 힘을 기울여 全國에 2,691個(1965. 3. 1. 現在)의 마을文庫를 設置하는데 成功하여 매마른 農村 사람들에게 마음의 糧食을 주었다는데는 이 運動을 일으킨 關係者에게 높은 讀解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마을文庫가 設置되고 讀書會가 組織되고 하였지만 現在 그 活動狀況이 疑問되는 것이다.

貴重한 마을文庫가 어느 舍廊房子석에 낮침을 차거나 담배연기로 쟁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學校 圖書館과 마을文庫設置運動을 一元化하여 보다合理的의而組織的인 計劃으로 外國의 그많은 公共圖書館이나 移動圖書館의 役割을 學校가 中心이 되어 할 것을 提唱하는 바이다.

그것은 비단 讀書運動의 國民皆讀思想의 普及보다는 앞에서 말한 鄉土學校 社會教育面에서도 더 큰 意義가 있기 때문이다.

具體的인 方法을 簡單히 쳐어 보면

1) 學校圖書館을 鄉土社會의 文化의 센터로 만들자는 것이다.

學校는 적어도 每年 새로운 圖書를 購入할 수 있는豫算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 이를 組織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技術을 가진 人的資原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文庫를 마을로 보낼 것이 아니라 中心되는 學校圖書館으로 보내서 既存한 圖書와 같이 運用함으로써 學校圖書館의 規模도 그 施設이 擴張되면서 앞에서 말한 鄉土社會의 開發에 學校와의 紐帶가 더욱 強化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自然豫算의 節約도 되고 마을文庫를 通한 國民皆讀運動도 쉽게 이루어지리라 본다.

그 運用의 方法으로서는

가) 兒童을 通하여 圖書의 貸出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 마을을 巡回시키는 巡回文庫를 만들어 一定한期間 마을에 貸出시켜 輪番制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

다) 마을마다 讀書會를 組織하여 그 責任者가 學校圖書館에 1個月에 한 차례씩 모여 이 運用의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2) 마을 讀書會를 組織하여 學校圖書館이 中心이 되고 指導的인 役割을 하자는 것이다.

마을에는 讀書指導를 할만한 指導者가 極히 드물고 圖書는 다만 글을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圖書를 貸出받았다 하더라도 그 內容을 充分히 理解하지 못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적어도 마을마다 讀書會를 組織하여 그 成員이 學校圖書館에 모여 讀書感想會, 發表會, 討論會等을 通하여 서로의 意見을 듣고 交換하는 가운데 思考力과 理解力이 強化되고 더욱 民主的인 生活訓練이 담아져 간다는데 더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風土는 參與的인 生活을 꺼려하기 때문에 民主社會의 建設이 언제나 他意에 依하여 左右되는 때가 많으니 自己의 思想을 大衆앞에 시원스럽게 發表하는 그것만이 라도 커다란 收獲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讀書人口와 藏書數를 손쉽게 많이 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文庫를 設置한 그것은 그것을 土台로 하여 豊은 圖書를 蒐集하고 基礎的인 作業이라고 보자만 現實問題로 새로운 新刊을 購入하여 藏書數를 늘인다는 것은 어쩌면 理想論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의 農村實態를 直觀하면 쉽게 理解되리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學校圖書館을 中心으로 하여 自然部落마다 每月 단 1卷의 圖書를 購入하여 寄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規模가 큰 圖書館으로 發展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며 學校에서도 兒童用의 圖書뿐이 아니라 鄉土社會가 要求하는 圖書를 購入하여 이를 頂는다면 學校圖書館은 文字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文化센터의 位置를 차지하리라고 믿어 疑心치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再三 強調하고 싶은 일은 마을文庫運動을 積極推進하되 그것을 自然部落單位로 設置할 것이 아니라 學校를 中心으로 하는 學校圖書館에 併設시킴으로서 더욱 有用한 運動이 되지 않을까 굳게 믿는 바이다.

鄉土教育의 問題가 教育界의 언저리에서 차츰 忘却되어 가는 이 때 學校圖書館運動과 때를 같이하여 다시 이 運動의 積極化에 關係當局의 協助를 바라면서 이 運動이 成就되는 날 우리의 前近代의 農漁村도 차츰 現代의 文明과 呼吸을 같이 할 수 있다는데서 愚見을 말했을 따름이다.

